"매 순간이 행복이고, 매일이 깨달음이다"



발 밑에 꽃 핀줄도 모르고
걀왕 드룩파 지음
유영일 풀어 옮김
다른세상 펴냄
1만2천원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을 후회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 높은 연봉을 받으면, 지금보다 큰 집을 얻으면…"등등.

해야 할 일은 갈수록 늘고, 이루고 싶은 목표는 커진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이뤄져도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자신의 소중한 삶만 뒤로 미뤄질 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행복인 줄도 모르고 놓쳐 버린 소소한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행복을 발견하고 못하고는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생 굴곡을 '고통의 순환' 이라 불렀다.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절망과 대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 또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통과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 뿐이라는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고 시간에 대한 걱정과 속박에서 벗어나면, 마음에 여유와 자유가 생겨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한다.

나를 삶의 중심으로 안내하다

저자는 한 달에서 석 달여에 걸쳐 수백 마일을 걷는 '파드 야트라' 라는 마음 여행을 주선한다.

광대한 자연 속에서 사색하며 맑음으로 충만한 본래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통로다. 자연과 함께 걷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과 영혼이 일치되는 경지를 체험한다.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으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고,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

마음이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 대단한 행복감이 밀려든다. 저자는 최고의 스승이자 가장 정확한 나침반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다.

순수하고 텅 빈 마음을 발전시켜 마음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면 목적이 분명해지고, 어떻게 해야 거기에 이를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존재의 심연에 가 닿는 따뜻한 위로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의해 붙여진 이름표, 즉 에고가 우리의 직관을 흐리게 한다.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아이' '개구쟁이' '거짓말쟁이' 라는 낙인 찍힌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과거에 성립된 고정 관념서 벗어날 수 없다. 날조된 자아가 본성이 고유의 아름다운 방식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타인에게도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며 오해를 창조한다. 화, 집착, 근심, 자기혐오, 자만 등 갖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비교와 경쟁 반열에 올려놓고 저울질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눈을 통해 가늠하고, 자신은 주어진 역할극을 떠맡아 수행하기에 바쁘다. 저자는 이러한 에고를

최고 스승이자 나침반은 자신
삶서 행복찾는 구체적방법 제시
초심자도 따라하는 명상법 소개

내려놓고 야생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면 다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인을 닮을 필요도, 자신을 다그칠 필요도 없다. 우리 자신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실천 가능한 내 안의 행복 찾기

저자는 삶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법, 소풍처럼 가볍게 삶을 대하는 법, 타인과 함께하는 법, 분노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 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것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법을 되짚어본다. 또한 처음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명상법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저자 걀왕 드룩파는?

'용의 교단' 이라 불리며 1천여 년 동안 널리 융성한 드룩파 교단의 종사다. 그는 4살 때 제11대 걀왕 드룩파의 환생으로 인정받은 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각지를 다니며 '자신이 본래 지닌 순수하고 텅 빈 마음을 발견하라' 는 주제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는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환경보호, 구제 사업, 교육, 의료봉사, 문화유산 보존 등을 진행하는 국제 휴머니즘 기구 '삶에서 사랑으로(www. live2love.org)' 의 설립이다. 그 공로로 그는 2010년 9월 유엔 MDG(United Nation' 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ward) 상을, 2011년 12월에는 인도의 대통령으로부터 그린 히어로 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카메론 디아즈, 리처드 기어, 양자경 같은 세계적 스타의 응원을 받으며 유럽과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 등지서 명상과 치유센터를 운영중이다. 저서로는 〈발밑에 꽃핀 줄도 모르고〉가 있다.

"보도 듣고 말할 마음 없는 이가 바로 도인"

선심으로 보는 세상

현각 스님 지음 | 한걸음더 펴냄 | 1만 2천원



세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보인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보는 세상과 성인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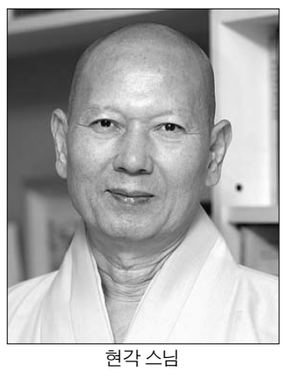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인 저자는 선심(禪心)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선심은 순수와 성찰과 반성이라고 저자는 명명한다. 이러한 선심에 대한 정의 또한 오랫동안 선학을 연구하고 그 세계에서 번민에 휩싸여 숱한 나날을 고뇌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의 전환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한 불교 선학자인 저자가 국내서는 다소 생소했던 선학 학문을 체계화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선심으로 바라보기 수월했지 않나 생각한다.

"혼자 오르는 산길은 호젓한 시간이다. 누구는 혼자 걷는 산길이 무섭다지만 내겐 그렇지 않다. 갈 때는 혼자 나선 길이지만 돌아올 때는 다른 나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바래고 총기가 가신 자신이 정화되어 새롭게 탄생해 동반하고 있지 않은가. 참 경이롭다."

이같은 '머리말' 에서도 드러나듯이, 현각 스님의 사유세계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호젓한 산길에서의 산책 한번으로 새 존재의 탄생을 발견해 낸다. 유사한 환경에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다.

스님은 이 책에서 다양한 주제로 세상을 바라봤다. '생명' '양심' '영혼' 을 노래했다. 이들은 바로 저자의 사유세계 속살이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저자의 글들은 책장을 넘기면서 한 참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한다고 하면 혀를 차며 안쓰러워한다. 그러나 실로 눈이 멀었을 때 비로소 참된 빛깔이 보이고 귀가 멀었을 때 비로소 참된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오히려 눈이 터져 있으므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귀가 뚫려 있으므로 들리는 것에 집착하기 쉽다. 보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말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히 도인이라 할 만하다." 이렇듯 우리가 평소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삶의 도리에 사유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현각 스님

'생명' '양심' 등 시선으로 세상 관찰
글 속에 아름다운 우리말 골라 사용
현대불교에 연재한 내용 발췌

이 책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편마다의 원고에 아름다운 우리말이 안성맞춤으로 들어 앉아 있다. 가끔씩은 우리말을 일부러라도 골라 쓰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지만, 이 책에서처럼 문장 속에 녹아들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글 맛을 살리는 경우는 드물다. 느낌으로는 대략 짐작하지만 정확히는 알기 어려운 우리말을 사전을 찾아 알아가는 〈선심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 눈을 좀 더 밝게 해줄 것이다.

한편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은 현대불교신문에 저자가 연재했던 내용들을 주로 발췌해 묶은 것들이다. 김주일 기자

통도사라는 '프레임' 으로 낱낱이 조명한 세상의 이치

통도유사

조용헌 지음 | 김세현 그림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 1만5천원



〈통도유사〉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이야기꾼 조용헌이 통도사를 프리즘으로 동서고금의 정신세계를 탐색해본 사찰 인문기행서다.

조용헌은 젊은 시절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공간과 사람들을 만나왔다. 유교의 선생, 도교의 고수, 불교의 스님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섭렵한 사주, 풍수, 한의학 관련 지식과 철저한 현장답사, 세상사 흐름에 대한 예민한 포착과 탁월한 통찰, 호방하고 웅숭깊은 필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독자들을 울고 웃기는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자는 '공부' 를 위한 유랑을 멈추지 않는다. 온몸으로 만나는 세상이 책이요,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에서 저자는 세상사 이치를 깨닫는 장(場)으로 사찰을 택했다. 오랜 세월 본래의 터를 지키고 있는 사찰에는 우리 조상의 민속신앙, 불교신앙, 신화가 꿈틀대고 있다. 저자는 한국, 중국, 일본 600여 사찰을 직접 답사하며 우리 신화를 들여다보는 사찰 인문기행서를 구상했고, 그 이야기의 무대를 통도사로 정했다. 646년 자장율사가 터를 잡은 통도사를 들고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문화권, 국경을 초월해 그 뿌리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에게 신화는 어떤 의미일까? 저자는 현대인들이 들끓는 고통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초월세계의 비밀에 눈을 떠야 한다고 말한다.

근심 걱정과 욕망으로 들어찬 마음을 바꿔 살기 위해, 중생의 분별심을 바꾸기 위해 '신이' 하고 '영험' 한 신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신화가 우리네 인생살이에 어떠한 방도를 일러주는지 제대로 일깨우기 위해서 조용헌은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일연의 서술방식을 선택했다. 이름하여 '유사체' 다.

역사 서술 방식에 있어서 김부식의 사기체와 일연의 유사체는 각각 나름의 존재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통도사의 전체 역사를 서술하는 입장에서 저자는 '유사체' 를 따르고 싶어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유사체가 우리에게 신념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만이 전부라면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신이' 와 '영험' 의 세계가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번뇌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체득한 인생살이의 방도를 건네는 메신저로, 천문, 지리, 인사라는 강호동양학의 3대 과목을 우리 콘텐츠로 끌어들인 독보적인 강호동양학자로 고군분투해왔다. 저자는 길 위에서 모은 웅숭깊은 이야기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화' 를 만나 그 깊이가 더해졌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네팔을 두루 돌아다니며 채집한 이야기들이 그의 생생한 현장체험과 〈산해경〉 〈주역〉 〈동국여지승람〉 〈삼국유사〉 〈정감록〉 등의 문헌을 통해 '천년고찰 통도사에 얽힌 동서양 신화 이야기' 로 재탄생한 것이다.

신과 인간, 자연을 톺아보는 신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통도사 창건 신화와 동서양의 새 숭배 신앙을 다룬다. 또한 우리나라 산의 명칭에 날짐승(닭, 기러기, 독수리, 봉황)이 들어가게 된

통도사 창건신화와 신앙 등 소개
저자, 한중일 등 6백여 사찰 답사

연유를 네팔과 미국 등 전 세계의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우리 고유의 민속신앙과 불교신앙의 카테고리에서 확장된 동서양 신화를 들여다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부에서는 통도사 절터에 깃든 용의 신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계자인 독수리 신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상상속의 동물인 용이 실재했었다' 는 설(說)의 근거를〈주역〉과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찾아본 색다른 시선이 눈길을 끈다. 그의 말대로 신화적인 동물들의 출현은 보통 사람이 아닌, 영적인 눈(眼)이 열린 사람들의 말을 누군가 듣고 기록한 내용들일 것이다. 직접 현장에서 채집한 이야기를 옛 문헌과 다양한 참고 자료로 고증한 조용헌만의 '살아 있는 공부' 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 4부에서는 불교의 암흑기였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통도사를 지켜낸 혜경스님, 구하스님, 경봉선사, 월하스님 등 고승들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에 수록된 동양화가 김세현의 수묵화 작품들은 조용헌의 글과 만나 쾌미를 고조시킨다. 조용헌의 담박하면서도 장쾌한 메시지를 힘 있는 필치로 그려낸 김세현 작가의 작품들 덕분에 신화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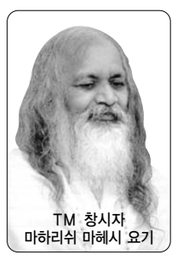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TM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가장 쉽고 빠른 힐링! 깨달음!
고혈압 • 심장병 • 우울증
불면 • 스트레스 해소
KBS(마음,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오프라 윈프리는 왜 TM을 선택했나?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수면보다 2배 깊은 휴식 /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 대인관계 개선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두뇌개발, 창의력 증가 / 당뇨, 비만 등 신진대사 증후군 개선
내면의 평화, 삼매경 체험 /자아완성(깨달음)
"초월명상으로 암 사망률 50%,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입증"
2005년 5월 2일 SBS 8시뉴스, 중앙일보 의학뉴스

때 : 10월 25일 오후 8시
곳 : 방배동 활인사 법문실
(사당역 11번 출구에서 우회전 300미터, 이수초등학교 뒷편)

때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반, 목요일 오후 7시반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건물 6층)

문 의 서울 598-3152 / 010-7504-1299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브라질 전 국립학교에 도입 !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재미있고 신기한 전기 건강법과 맨손 터치 자동교정술

각종 통증 해소! 전기의 신비!
電通활락법

◎ 12년전 처음 공개 전수하여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220v전기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전기기통법! 전통활락법의 종가, 전통활락원에서 2013년 정통으로 가르친다. *누구나 쉽게 배워 바로 쓸 수 있다. 사기를 받지 않고 손기가 없다.*

◎ 내 몸의 자생력(元神)을 깨워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신기한 자동교정법, 元神自正法(원신자정법)

◎ 공개 체험 무료 설명회 (백문이불여일견)
누구나 즉석에서 기통과 인체 활성화를 체험하는 현장! 강력한 전기 기통(氣通)의 신비를 확인하십시오

◈ 서울지역 - 10월 30일(목) 오후5시~7시 전통활락원
전철 8호선 강동구청역 2번 출구 직진 3분 강동구청앞
(서울 강동구 성내1동 551 강동빌딩 205호)
교육문의, 예약전화 010-4724-1123

◈ 경남지역 - 11월 2일(토) 오후3시 - 5시
광법사 (전통활락원 원장 출장 직강)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3(남해대교 옆)
위치 안내전화 055)882-1097. 011-557-2773

◎ 전수일정 (교육장소 : 광법사)
11월 3일(일) 오전9시 ~ 오후6시

* 10월 25일까지 예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